

모든 역량을 가물과의 투쟁에 총동원, 총집중하자

비상한 각오를 만장약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큰 믿음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하겠다.》

가물피해막이전에 펼쳐나 설에 대한 당의 호소마라 평양 시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심장의 더욱 퍼물 뻔한 고통이며 산악같이 펼쳐나섰다.

오늘날 가물피해를 철저히 막는 것은 당정책수행, 사회주의수호전이며 올해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한 일군들이 분발하였었다.

가물과의 투쟁은 포전에 불주거나 한두번 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이 투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고 몇몇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분발하여 투쟁 또 투쟁하자.

시일군들은 이런 투쟁한 정신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는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이와 함께 가물피해를 막아나갈 수 있는 농경지들을 구체적으로 조사정리하고 이 사업에 농업근로자들이 아니라 밭을

평양 시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큰 믿음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하겠다.》

가물피해막이전에 펼쳐나 설에 대한 당의 호소마라 평양 시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심장의 더욱 퍼물 뻔한 고통이며 산악같이 펼쳐나섰다.

오늘날 가물피해를 철저히 막는 것은 당정책수행, 사회주의수호전이며 올해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한 일군들이 분발하였었다.

가물과의 투쟁은 포전에 불주거나 한두번 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이 투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고 몇몇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분발하여 투쟁 또 투쟁하자.

시일군들은 이런 투쟁한 정신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는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이와 함께 가물피해를 막아나갈 수 있는 농경지들을 구체적으로 조사정리하고 이 사업에 농업근로자들이 아니라 밭을

평양 시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큰 믿음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하겠다.》

가물피해막이전에 펼쳐나 설에 대한 당의 호소마라 평양 시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심장의 더욱 퍼물 뻔한 고통이며 산악같이 펼쳐나섰다.

오늘날 가물피해를 철저히 막는 것은 당정책수행, 사회주의수호전이며 올해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한 일군들이 분발하였었다.

가물과의 투쟁은 포전에 불주거나 한두번 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이 투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고 몇몇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분발하여 투쟁 또 투쟁하자.

시일군들은 이런 투쟁한 정신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는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이와 함께 가물피해를 막아나갈 수 있는 농경지들을 구체적으로 조사정리하고 이 사업에 농업근로자들이 아니라 밭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큰 믿음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하겠다.》

가물피해막이전에 펼쳐나 설에 대한 당의 호소마라 평양 시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심장의 더욱 퍼물 뻔한 고통이며 산악같이 펼쳐나섰다.

오늘날 가물피해를 철저히 막는 것은 당정책수행, 사회주의수호전이며 올해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한 일군들이 분발하였었다.

가물과의 투쟁은 포전에 불주거나 한두번 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이 투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고 몇몇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분발하여 투쟁 또 투쟁하자.

시일군들은 이런 투쟁한 정신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는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이와 함께 가물피해를 막아나갈 수 있는 농경지들을 구체적으로 조사정리하고 이 사업에 농업근로자들이 아니라 밭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큰 믿음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하겠다.》

가물피해막이전에 펼쳐나 설에 대한 당의 호소마라 평양 시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심장의 더욱 퍼물 뻔한 고통이며 산악같이 펼쳐나섰다.

오늘날 가물피해를 철저히 막는 것은 당정책수행, 사회주의수호전이며 올해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한 일군들이 분발하였었다.

가물과의 투쟁은 포전에 불주거나 한두번 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이 투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고 몇몇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분발하여 투쟁 또 투쟁하자.

시일군들은 이런 투쟁한 정신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는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이와 함께 가물피해를 막아나갈 수 있는 농경지들을 구체적으로 조사정리하고 이 사업에 농업근로자들이 아니라 밭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큰 믿음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하겠다.》

가물피해막이전에 펼쳐나 설에 대한 당의 호소마라 평양 시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심장의 더욱 퍼물 뻔한 고통이며 산악같이 펼쳐나섰다.

오늘날 가물피해를 철저히 막는 것은 당정책수행, 사회주의수호전이며 올해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한 일군들이 분발하였었다.

가물과의 투쟁은 포전에 불주거나 한두번 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이 투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고 몇몇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분발하여 투쟁 또 투쟁하자.

시일군들은 이런 투쟁한 정신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는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이와 함께 가물피해를 막아나갈 수 있는 농경지들을 구체적으로 조사정리하고 이 사업에 농업근로자들이 아니라 밭을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땅속을 보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전입니다.》

작지 농촌들이 가물피해막이전투를 벌들

은을 내는 고랑관수

송림사에서 받고관수에 관한 힘을 넣고있다.

시당위원회 지도원에 상응하는 임원들과 농장원들이 당정책수행전에 나서기 위하여 열렬히 애를 기울여 자연로프식으로 고랑관수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내걸고있다.

로인들속에 들어가 아이를 나누는 과정에 제5작업반에 쓰지 않는 급수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농장의 일군들은 해당 선원들과 함께 현지답사를 통해 그것을 찾아내어 고랑관수의 틀과구를 없애놓았다.

본천군일군들이 가물과의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올해농사의 성과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작전과 지휘를 주도세밀하게 해나가고있다.

이들은 땅속을 등성이에 끌어올려 자연로프식으로 고랑관수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내걸고있다.

로인들속에 들어가 아이를 나누는 과정에 제5작업반에 쓰지 않는 급수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농장의 일군들은 해당 선원들과 함께 현지답사를 통해 그것을 찾아내어 고랑관수의 틀과구를 없애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전입니다.》

작지 농촌들이 가물피해막이전투를 벌들

은을 내는 고랑관수

송림사에서 받고관수에 관한 힘을 넣고있다.

시당위원회 지도원에 상응하는 임원들과 농장원들이 당정책수행전에 나서기 위하여 열렬히 애를 기울여 자연로프식으로 고랑관수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내걸고있다.

로인들속에 들어가 아이를 나누는 과정에 제5작업반에 쓰지 않는 급수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농장의 일군들은 해당 선원들과 함께 현지답사를 통해 그것을 찾아내어 고랑관수의 틀과구를 없애놓았다.

본천군일군들이 가물과의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올해농사의 성과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작전과 지휘를 주도세밀하게 해나가고있다.

이들은 땅속을 등성이에 끌어올려 자연로프식으로 고랑관수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내걸고있다.

로인들속에 들어가 아이를 나누는 과정에 제5작업반에 쓰지 않는 급수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농장의 일군들은 해당 선원들과 함께 현지답사를 통해 그것을 찾아내어 고랑관수의 틀과구를 없애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전입니다.》

작지 농촌들이 가물피해막이전투를 벌들

은을 내는 고랑관수

송림사에서 받고관수에 관한 힘을 넣고있다.

시당위원회 지도원에 상응하는 임원들과 농장원들이 당정책수행전에 나서기 위하여 열렬히 애를 기울여 자연로프식으로 고랑관수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내걸고있다.

로인들속에 들어가 아이를 나누는 과정에 제5작업반에 쓰지 않는 급수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농장의 일군들은 해당 선원들과 함께 현지답사를 통해 그것을 찾아내어 고랑관수의 틀과구를 없애놓았다.

본천군일군들이 가물과의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올해농사의 성과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작전과 지휘를 주도세밀하게 해나가고있다.

이들은 땅속을 등성이에 끌어올려 자연로프식으로 고랑관수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내걸고있다.

로인들속에 들어가 아이를 나누는 과정에 제5작업반에 쓰지 않는 급수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농장의 일군들은 해당 선원들과 함께 현지답사를 통해 그것을 찾아내어 고랑관수의 틀과구를 없애놓았다.

강냉이잎자르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곡산군 덕흥협동농장에서

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엄격한 자정요구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장이 중간간지대에 위치한 조건에서 불충분히 지속되고 있는 불리한 기상후조건의 농작물의 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물이 지워지는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다수확을 내기 위하여 가물피해막이전투를 벌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전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된 방위입니다.》

가물피해막이전투를 벌들

은을 내는 고랑관수

송림사에서 받고관수에 관한 힘을 넣고있다.

시당위원회 지도원에 상응하는 임원들과 농장원들이 당정책수행전에 나서기 위하여 열렬히 애를 기울여 자연로프식으로 고랑관수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내걸고있다.

가물피해를 극복하는 데서

농업 기술적 문제

실에서 우월성이 확보된 여러 가지 불충분한 농작물을 널리 일인 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물이 없는 마른논에 이차비료 또는 조립비료를 주는 경우 600L 이상의 물로 비료를 희석하여 4포기중심에 분무기 또는 비닐봉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직접 좌주도 록 해야 한다.

평당 40포기인 경우 4포기중심에 20ml, 60포기일 때 4포기중심에 1.3, 3ml, 80포기인 경우에는 4포기중심에 10ml의 비료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전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된 방위입니다.》

가물피해막이전투를 벌들

은을 내는 고랑관수

송림사에서 받고관수에 관한 힘을 넣고있다.

시당위원회 지도원에 상응하는 임원들과 농장원들이 당정책수행전에 나서기 위하여 열렬히 애를 기울여 자연로프식으로 고랑관수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내걸고있다.

가물피해를 극복하는 데서

농업 기술적 문제

실에서 우월성이 확보된 여러 가지 불충분한 농작물을 널리 일인 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물이 없는 마른논에 이차비료 또는 조립비료를 주는 경우 600L 이상의 물로 비료를 희석하여 4포기중심에 분무기 또는 비닐봉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직접 좌주도 록 해야 한다.

평당 40포기인 경우 4포기중심에 20ml, 60포기일 때 4포기중심에 1.3, 3ml, 80포기인 경우에는 4포기중심에 10ml의 비료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전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된 방위입니다.》

가물피해막이전투를 벌들

은을 내는 고랑관수

송림사에서 받고관수에 관한 힘을 넣고있다.

시당위원회 지도원에 상응하는 임원들과 농장원들이 당정책수행전에 나서기 위하여 열렬히 애를 기울여 자연로프식으로 고랑관수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내걸고있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사회주의협동벌



평양시 순안구역과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불라는 애국충정의 마음안고 펼쳐놓은 사회주의선경

수도의 본보기구획, 표준구획으로 일신된 대동강구역 청류지구를 돌아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애국은 자기 집앞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애국심은 자기 부모처에게 대한 사랑, 자기 고향마을과 일리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싹트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올바르게 진행된 대동강구역의 청류지구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한다. 조화로운 아름다움과 함께 어울리는 아름다움과 공공건물들이 인공으로 멋있어 보인다고 하면,

이제와 적대세력들이 발악적인 경제봉쇄책들을 벌리고있는 때에 우리의 손으로 사회주의의 명을 더 완벽 할리워가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하고 떨쳐내신 대중의 힘은 참으로 무궁무진하였다.

너무도 아름답고 어렵게만 생각되던 구획사업이 일단 주민들이 발흥의자 계획했더니로 하나하나 진행되어나갔다.

주민들모두가 힘을 합쳐 보도블록과 보도와 횡단보도 그리고 아파트주택과 학교를 짓고 아파트주택의 아름다움을 높이려는 애국적 열정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열정을 보여준 인민들의 마음은 뜨겁게 끓어올랐다.

한편, 두번 차질없이 건설장으로 달려나갔다. 모래라도 한삼 드렸다고, 더운 국을 끓여왔는데 성으로 받아달라고...

하여 청류1동에는 짧은 기간에 배구장과 육상터, 어린이놀이장을 갖춘 현대적인 새 공원이 일떠서 인민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윽하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청류초등학교 교장 장인숙동무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인제이니 학교를 돌아보게 나왔던 구획사업은 교사실에서 한동안 걸음을 멎지 못하였다. 교사가 남아있었던것이였다.

그날 책임인원은 청류지구구획사업이 진행될 때 교사와 외장제를 반드시 두어야 했을것이다. 그러고 보면, 주별로 총회와 평가회를 열어 진행하자 자연히 단위를 통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는 데서 찾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냈었다.

우선 한개 동씩 맡은 인민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한편 통일선진화사업과 인민안정사업이 구획사업에서 본보기로 창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일, 주별로 총회와 평가회를 열어 진행하자 자연히 단위를 통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는 데서 찾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냈었다.

우선 한개 동씩 맡은 인민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한편 통일선진화사업과 인민안정사업이 구획사업에서 본보기로 창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일, 주별로 총회와 평가회를 열어 진행하자 자연히 단위를 통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는 데서 찾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냈었다.

이제와 적대세력들이 발악적인 경제봉쇄책들을 벌리고있는 때에 우리의 손으로 사회주의의 명을 더 완벽 할리워가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하고 떨쳐내신 대중의 힘은 참으로 무궁무진하였다.

너무도 아름답고 어렵게만 생각되던 구획사업이 일단 주민들이 발흥의자 계획했더니로 하나하나 진행되어나갔다.

주민들모두가 힘을 합쳐 보도블록과 보도와 횡단보도 그리고 아파트주택과 학교를 짓고 아파트주택의 아름다움을 높이려는 애국적 열정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열정을 보여준 인민들의 마음은 뜨겁게 끓어올랐다.

한편, 두번 차질없이 건설장으로 달려나갔다. 모래라도 한삼 드렸다고, 더운 국을 끓여왔는데 성으로 받아달라고...

하여 청류1동에는 짧은 기간에 배구장과 육상터, 어린이놀이장을 갖춘 현대적인 새 공원이 일떠서 인민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윽하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청류초등학교 교장 장인숙동무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인제이니 학교를 돌아보게 나왔던 구획사업은 교사실에서 한동안 걸음을 멎지 못하였다. 교사가 남아있었던것이였다.

그날 책임인원은 청류지구구획사업이 진행될 때 교사와 외장제를 반드시 두어야 했을것이다. 그러고 보면, 주별로 총회와 평가회를 열어 진행하자 자연히 단위를 통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는 데서 찾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냈었다.

우선 한개 동씩 맡은 인민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한편 통일선진화사업과 인민안정사업이 구획사업에서 본보기로 창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일, 주별로 총회와 평가회를 열어 진행하자 자연히 단위를 통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는 데서 찾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냈었다.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자

평양시당위원회는 적극적인 지도와 방축속에 대동강구역에서 청류지구 구획의 본보기구획, 표준구획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벌써 몇달전이었다. 당시 구역안의 기본건설현황이 여러 중요대상건설에 동원된 조건에서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간다는 것은 합리적 법칙이었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지휘부를 조직하고 청류지구구획사업을 전개하였다.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의 일꾼들은 많은 방의 외장제와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들을 보장해 주면서 구획사업을 적극 떠맡아 하였다.

구역전반관리소와 도시건설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동원되어 전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방대한 구획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발흥되지 않고서는 성과물을 거둘 수 없었다.

구역의 일꾼들은 인민들만을 믿어가지고 헌신하여 내려가 청류

집단적혁신을 안아온 경쟁열풍

청류지구는 경쟁열풍이 온 나라를 휘둘러 따라오면서,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도처에서 파급되어 전개되고 있다. 대한 당의 방침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실적으로 다스리면서 실증해오고 있다.

구역당위원회 책임인원은 당에서 의도하는대로 청류지구구획에서 최고의 속도로 최상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를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는 데서 찾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냈었다.

우선 한개 동씩 맡은 인민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한편 통일선진화사업과 인민안정사업이 구획사업에서 본보기로 창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일, 주별로 총회와 평가회를 열어 진행하자 자연히 단위를 통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는 데서 찾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냈었다.

우선 한개 동씩 맡은 인민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한편 통일선진화사업과 인민안정사업이 구획사업에서 본보기로 창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일, 주별로 총회와 평가회를 열어 진행하자 자연히 단위를 통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는 데서 찾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냈었다.

이제와 적대세력들이 발악적인 경제봉쇄책들을 벌리고있는 때에 우리의 손으로 사회주의의 명을 더 완벽 할리워가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하고 떨쳐내신 대중의 힘은 참으로 무궁무진하였다.

너무도 아름답고 어렵게만 생각되던 구획사업이 일단 주민들이 발흥의자 계획했더니로 하나하나 진행되어나갔다.

주민들모두가 힘을 합쳐 보도블록과 보도와 횡단보도 그리고 아파트주택과 학교를 짓고 아파트주택의 아름다움을 높이려는 애국적 열정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열정을 보여준 인민들의 마음은 뜨겁게 끓어올랐다.

한편, 두번 차질없이 건설장으로 달려나갔다. 모래라도 한삼 드렸다고, 더운 국을 끓여왔는데 성으로 받아달라고...

하여 청류1동에는 짧은 기간에 배구장과 육상터, 어린이놀이장을 갖춘 현대적인 새 공원이 일떠서 인민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윽하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청류초등학교 교장 장인숙동무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인제이니 학교를 돌아보게 나왔던 구획사업은 교사실에서 한동안 걸음을 멎지 못하였다. 교사가 남아있었던것이였다.

그날 책임인원은 청류지구구획사업이 진행될 때 교사와 외장제를 반드시 두어야 했을것이다. 그러고 보면, 주별로 총회와 평가회를 열어 진행하자 자연히 단위를 통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는 데서 찾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냈었다.

우선 한개 동씩 맡은 인민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한편 통일선진화사업과 인민안정사업이 구획사업에서 본보기로 창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일, 주별로 총회와 평가회를 열어 진행하자 자연히 단위를 통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는 데서 찾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냈었다.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일러에 차넘치는 미덕의 향기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복수결의모임 진행

【신문 6월 22일 발 조선 중앙통신】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복수결의모임이 22일 신진박물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막대식 황해남도당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서 일꾼들, 신천군안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장준식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이며 황해남도녀맹위원회

수정전교복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은 나라에 서로 돕고 이기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정전교복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누구나 사회의 진보를 위한 일을 스스로 찾아내는것을 영예로,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그들속에는 3직장 녀맹모듬자 피릴순동무도 있다.

지난해 10월 어느날 피릴순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원들은 남공과 모양제, 식료품 등을 마련해가지고 특유형에군인인 특고철남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그들은 혁명적인 시를 읊고 노래도 부르면서 영예군인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고무해주었다.

조국보위초소에서 위기일발의 순간에 한눈에 내어 놓지 않을 구원하고 붉은 비옥 삼밭지만 이제 남 병사의 사로로 전두적으로 생활하고있는 특고철남동무의 모습을 보면서 피릴순동무가 그날 받은 충격을 이었다.

(특고철남동무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더 잘 도와주자.)

그때부터 피릴순동무의 발걸음은 특유형에군인의 길로 계속 이어졌다.

성의미 미려한 보약제들을 가지고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스웨리에 왕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리수용동지는 22일 작별방문하여 온 한미보도대령 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세월이 흐르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계급투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세월이 흐르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계급투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이 말은 계급투쟁이 혁명의 본질을 나타내주고 있다. 계급투쟁은 혁명의 본질을 나타내주고 있다. 계급투쟁은 혁명의 본질을 나타내주고 있다.

평양국제건강 및 가정용의료기구부문 과학기술전시회 개막

평양국제건강 및 가정용의료기구부문 과학기술전시회가 22일 과학기술관에서 개막되었다. 전시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100여개 단체들이 출품한 건강식품과 제품, 집형치료에 효과가 좋은 의약품들, 진단과 치료에방어 유용되는 영상영상 장비와 각종 의료기구들이 전시되었다. 개막식에는 최정호 부총리 겸 과학기술총장, 김형권 보건성 부상, 보건부와 가정용의료기구개발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새 교수방법창조와 혁신적인 사업기풍

혁명의 일꾼들은 새 교수방법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단계별전진을 치밀하게 꾀고있다.

새 교수방법을 창조하는데서 기본은 현대적인 교수방법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교수방법을 탐구해보는것이요, 그리고 대학일꾼들은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많은 품을 들여 다기능화된 교실품을 훌륭히 꾸려놓고 교육내용도 풍부히 꾸려주었다. 새것을 창조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이곳 교수자들은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기간 그야말로 쉼없이 전진해 나갔다.

한편, 혁명적열정을 발휘한 대학일꾼들은 교실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간의 노력과 헌신을 기울였다.

이런 계기로 따라오라기, 따라배우라기, 경험교환운동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다.

강화교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밤길도 전진해 나갔다.

대학에서는 강화교수경연에 모든 교원들을 차례로 다 참가시켜 강의를, 개인인성을 높여 주었다. 그리고 여기서 우수한 학생을 평가한 교원들의 강의력 또 다시 보여주고 합평회를 통하여 분석하고 후 좋은 점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였다.

몇달동안 끊임없이 벌어진 이런 경쟁과정에서 교원들의 교수자질은 눈에 띄게 높아졌으며 수많은 새 교수방법들이 탐구되었으며 학생들속에서 최우등생대렬이 훨씬 늘어났다.

현대 대학교육은 교원들이 학생들과 마음 통해 쌍방향대화를



김철주 사범대학 일꾼들의 사업에서

얼마후 최순희동무는 교재과목강의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의 짧은 시간안에 보다 깊게 파악하고 토론과 질문에 적극 참가하게 함으로써 교수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일수 있게 하는 새 교수방법을 완성하였다.

한편 정광선, 리영애동무들도 지원과목강의에서 다기능화된 교실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실험도 하고 쌍방향자료교환도 하면서 토론과 논쟁, 발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실리적이고 우월한 교수방법들을 내놓았다.

이들이 창조한 새 교수방법들은 경애하는 원수님들 기쁨을 드리고 진취에 일관화되었다.

은 교정이 커다란 객정으로 들끓었다.

이런 눈부신 성과물, 이룩한 대학에서는 불요불급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의 탄생 100주년과 대학원생 70권이 되는 지난해에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발인하는데 이어 3대 혁명투사 김철주 동지를 축하하였다.

올해에도 대학에서는 구부만을 통하여 우수한 교원이 어떻게 교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자질을 높여 주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교원대령을 새 교수방법창조에도 훌륭히 이끌어가고있는 이 곳 일꾼들의 사업경험은 모든 교육일꾼들이 교육방법의 저변을 열기 위한 창조적인 일꾼들을 지니고 끊임없이 전진해나갈때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제강국건설의 기수가 될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단합을 도모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7년을 맞이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남조선당국이 동북을 적대시하는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것을 절대불변의 전제로 받아들이고 통일과 단결의 길이 넓어지고 민족의 장창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명실함대 대해 강조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에 기초하여 화해와 단합으로 파국을 처한 북남관계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나가는 데의 의지로써 출발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은 민족의 단결을 앞세워 대결관념을 없애고 사상과 리념, 정경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지금 북남관계는 사상 최악의 상태에 처해있다. 민족의 밝은 앞날을 가약해준 1948년 6.15선언은 존속조치로 찾기 어렵게 되고 북남사이에는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기운만이 무지개 비쳐지고 있다. 서로 용만한 비구적 현실이 아닐수 없다.

원인은 무엇인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리행을 뒷받침하지 않는 남조선의 친미 보수파가 동북을 적대시하는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도모해나가는 한다는 것이

오늘의 시대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조국통일위원회는 그자체가 끌어낸 민족의 힘을 있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것이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민족통일의 리익을 앞세우면서 사상과 제도, 리념과 정경의 차이를 뛰어넘어 단합하고 단결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이다.

북과 남은 한민족을 나누는 통족이다. 비록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열과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이 동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이유로 되지 않는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것만을 절대시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강요하려 한다면 민족내부의 불신과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나중에는 총동과 전쟁을 피할수 없다.

6.15의 기치밑에 활력있게 전진한 우리 북남관계는 통족과 민족의 통일과 공동번영에 대한 사상과 제도를 폐지하려고 피를 흘리고 남편 리명박, 박근혜의 대결관념을 버리고 그것을 달래주었다.

역적계당의 끝에는 오로지 동족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 제질적인 적대관념만이 딱 들어차있다. 한민족을 나누는 통족을 통일의 동반자가 아니라 《주적》으로, 우리의 통일을 상대방의 제도를 버리는 《제체통일》로 보고 대하는 괴뢰보수계당의 반민족적인 대결관념과 필경은 우리에게 대한 악의에 찬 비방중상과 적대행위, 끊임없는 북침전경도발소탕으로 이어졌다. 반공파괴고립압살을 노린 핵소탕과 우리의 사상과 제도, 최고존엄을 약탈하게 짓는 심리전방송과 비파살로, 《인연노략계획》 그리고 북침원성제타격으로 노획의 위협을 감수할수 없는 대결의 악순환에 몰이넣고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전쟁 위험을 조성하였다.

남조선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이 떨쳐일어난 대중적인 초분할행위에 대해 박근혜《정권》이 비참한 통압을 고집하는 민족을 배신하고 민심을 거역하며 동족대결에 미쳐나면 대국적역량에게 내리쳐 응당한 징벌이고 존엄한 경고이다.

보수《정권》의 몰락이후 등장한 현 남조선《정권》은 지금 동북과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새 전환기를 열어나간다는 아니라 선임자들이 걸은 대결의 불미스러운 전철을 다시 밟고나가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북과 남이 통족과 힘을 합치면 평화로 안아오고 공동의 번영도 이룩할수 있지만 서로 불신하고 대결하면 세양악에 벗어날것이 없다. 지루하게 이어온 북남대결의 악순환을 이제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핵폭은 불신과 대결의 감정을 대량하게 덜어내고 피를 나누는 통족과 손을 잡으면 비록 못할 난문제를 있을수 있다. 북과 남은 이미 가슴속엔 6.15선언의 정신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의 정성에 대한 상례를 존중하며 단합과 단결을 위해 실행행동을 적극 따라세우면 반드시 거세의 지향과 요구에 부합되는 훌륭한 결과를 얻을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 주었다. 지금이 바로 동북에 대한 적대관념을 떨쳐버리고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력정에 들어서야 할 때이다.

하지만 현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보수세력의 논지를 보며 여전히 동북대결의 남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정권력이 《북적경고》 같은 우리의 적《이러나》, 《제체와 압박공포를 이어가겠다》, 《노획》하는 용납 못할 대결관념을 늘어놓으면서 괴뢰보수계당과 마찬가지로 《북적제방비》를 추구하고 동북압살에 계속 매달리며 하고있는것도 그

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거세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에 대해 환영의 박수를 보내지는 공식하고 당시말게 그 무는 《위협》이나, 《도발》이나 하고 겁교를면서 미국과 아합하여 반공화국제재와 압박을 도발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것은 리명박, 박근혜《정권》과 겹고 다를바없는 저들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놓는것이다.

반공화국제재와 압박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총체로 말아본 대국적책동으로서 공식적인 동북대결선언으로 된다. 따라서 제재와 대외, 압박과 협박의 그 무는 《병행》에 대하여 떠돌아 북남관계개선을 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이며 동북에 대한 기반우용일뿐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실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갈 의지가 있다면 외세와 아합하여 동북을 반대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거둬가고 몇몇 민간단체들이나 오고거가 과거와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뻔한 노릇을 할수 있다. 우리는 북과 남이 상대방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서로 손잡고나가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한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의지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처럼 대결의 길을 계속 걸었다면 우리 역시 자기의 선택을 할것이다.

제체대결의 끝은 물리적충돌이다. 남조선정권이 우리의 힘장을 의도하고 한사과 제체대결을 고집한다면 부득불 비정화적방법에 의한 통일로 나가게 될수밖에 없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라 설 하**

정의와 진리에 칼질하는 파쇼적폭거는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망동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민주법가협회 대변인담화

지금 남조선에서는 《민주개혁》을 표방하는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결시대의 악법이 활개치며 민주와 진리를 교살하는 살충행이 펼쳐지고있다.

엄밀한 남조선사법당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결정공판방송을 밀려놓고 인터넷에 백두산결정위인들을 찬양하는 글을 실고 편복통일을 주장한 한 주민을 약탈하는 《보안법》에 반하여 징역 5년을 구형한것이 그 대표적사례이다.

이제 앞서 지난 13일에도 박근혜《정권》때 우리의 력경되었다는 간첩혐의로 구속수감한 한 목사에 대한 재판방송을 밀려놓고 온갖 남조선적 비복통일을 벌이고 있는 정, 세, 생칼을 갈망하는 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도둑이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데세의 흐름을 막아보려는 사대적외적망동이다.

이런데 남조선당국이 약탈을 불려온 사람들로 말하면 도둑이 신용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고 선군정치로 민족의 존엄을 높이 펼치신 결성위인들에게 대한 용납을 안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투쟁해온 애국적주민들이다.

민족이 낳은 결성위인들을 경모하며 용인국을 위해 헌신하는것은 저세의 숭고한 사상적정신과 한결같은 통일일념을 반영한 의로운 활동으로서 절대로 비쳐지실수 없다.

정의와 진리를 따르고 지조와 양심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리인으로 끌어내는 망동이어말로 온 저세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 할반민족적, 반인륜적악이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륜행은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력하고 범죄하고 가혹하게 처형한 리명박, 박근혜대당의 광기어린 《총독적》소패를 방불케 하고있다.

불법무도한 《총독》망동속에 합법적인 정당, 로조, 언론들이 강제해산, 강제폐간되고 생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진보민주주의력이 무장한 반인륜행인 암울한 시기가 바로 켈미보수계당의 필진시기였다.

현 집권당이라도 그 살벌한 력도 과잉이 아니라 력적계당의 파쇼적대우할과 극한 동북대결정책을 반대하는 민심에 편승한 《보안법》의 폐쇄성과 부당성을 백일해왔다는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한 남조선당국이 박근혜 보수《정권》이 파멸당한 오늘에 와서도 이전과 다름없이 《보안법》의 칼날을 미구 휘두르며 무고한 주민들을 탄압처형하고있으니 과연 군부독재시대의 파쇼적행위들과 무엇이 다른가.

현 남조선당국이 초분민심을 대변한 《정권》이라면 마땅히 박근혜《정권》의 가장 큰 폐해지였던 통일애국인사들, 무고한 항소수들에게 불려왔던 온갖 어리석은 죄를 전면무효화하고 그들아우 조건적 석방하는것이 옳을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용납을 내밀 대신 오히려 박근혜《정권》의 상속자처럼 《보안법》의 칼날을 잡고 역적계당이 잡아가듯 주민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한것은

자주와 정의의 생체인 우리 평화국 애국자들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거르고 말살해버리려는 남조선 미제의 무분별한 력전경도발방기가 극도에 달하고있다.

6월 20일 미제는 일본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하고있는 미제실력군 해군 이즈모함대 《미스킨》호를 조선전쟁지역에 끌어들이 위협 경제수역을 200km이상이나 침범하면서 정찰행위를 벌이게 하는 엄청난 군사적도발행위를 강행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함도의 연대순공군기지에서 리복시전 력적행위까지

《CB-1B》2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 상동시경상공에서 비폭공군전투기들과의 협동훈련을 우리 주요대상물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폭탄투하연습을 강행한데 이어 조선동해상공에서도 이권대성 폭격기연습을 벌이며 벌여놓았다.

남조선은 력전경도발행위를 고위위키 위하여 력적행위적기들을 남조선에 비공개적으로 은밀히 끌어들이던 지난 2000년대 말에 이르면서 력적행위적기 《CB-1B》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모호시킴으로써 2시간간섭이나 조선반도상공에서 돌아지게 하였으며 이에 대해 즉시 언론에 공개하였다.

미제의 핵타격수단들이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력전경도발을 벌이며 벌여놓았는 시기에 상동시경까지 퍼져있는 내진 핵전력을 우리 경제수역까지 침범 시키고 로복적인 정찰행위를 강행한것은 결코 스쳐지날 일이 아니다.

남조선지역과 조선통해 우리측 수역에서 통시디발적으로 벌여지고있는 미제의 위협행위들 안산사도발행들은 조선반도에서의 력전행위들이 극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이미 미국에 알아들으리만큼 충고도 주었고 여러차례에 걸쳐 경고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행정부는 파쇼대당중에서 빠져 우리에게 력적타격을 가하려고 오만무려 하게 달려들었다.

지금 우리 군대는 남로 가장되고있는 미제의 침략행위에 대처하여 정의의 력대포를 더욱 역세게 불어치고 보복의 칼날을 보다 날카롭게 비리고있다.

미제화전행위를 무모한 력전경도발방기로 《선사》발상을 미국의 평양뿐이 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함부로 경지당동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엄밀한 쿠바혁명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의 내부정복과 경제봉쇄를 추구하는 세로모의 대우정책을 선포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단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대쿠바정책은 분침상 《미국민주주의와 자유》, 《인권》보장의 간담에 쿠바내부에 불안정을 조성하고 쿠바에 대한 봉쇄를 더욱 강화하여 이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본복을 드러민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밖에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시기 제정된 모든 《알보》협정들을 파기할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역대 집권자들은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나라들을 전복하고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했으며 국제적합의와 공약도 깨뜨림으로써 뒤집고 오바마시기를 비롯한 때를 거슬러오르며 트럼프행정부가 두 뒤집어엮은것은 그 대표적사례로 된다.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나라들을 정지, 강제, 군사, 외교적으로 고립봉쇄하고 전복하여 미국

의 비위에 맞지 않는 모든것을 짓밟아버리고 알리를 가리지 않고 넣는것은 미국고유의 대국적특색이다.

오늘의 정세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철저히 견제하고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과 연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는 만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쿠바당과 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성을 보일것이며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을것이다.

주제106(2017)년 6월 22일 **평 양**

극도에 달하고있는 미제의 무모한 력전경도발방기

자주와 정의의 생체인 우리 평화국 애국자들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거르고 말살해버리려는 남조선 미제의 무분별한 력전경도발방기가 극도에 달하고있다.

6월 20일 미제는 일본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하고있는 미제실력군 해군 이즈모함대 《미스킨》호를 조선전쟁지역에 끌어들이 위협 경제수역을 200km이상이나 침범하면서 정찰행위를 벌이게 하는 엄청난 군사적도발행위를 강행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함도의 연대순공군기지에서 리복시전 력적행위까지

《CB-1B》2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 상동시경상공에서 비폭공군전투기들과의 협동훈련을 우리 주요대상물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폭탄투하연습을 강행한데 이어 조선동해상공에서도 이권대성 폭격기연습을 벌이며 벌여놓았다.

남조선은 력전경도발행위를 고위위키 위하여 력적행위적기들을 남조선에 비공개적으로 은밀히 끌어들이던 지난 2000년대 말에 이르면서 력적행위적기 《CB-1B》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모호시킴으로써 2시간간섭이나 조선반도상공에서 돌아지게 하였으며 이에 대해 즉시 언론에 공개하였다.

미제의 핵타격수단들이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력전경도발을 벌이며 벌여놓았는 시기에 상동시경까지 퍼져있는 내진 핵전력을 우리 경제수역까지 침범 시키고 로복적인 정찰행위를 강행한것은 결코 스쳐지날 일이 아니다.

남조선지역과 조선통해 우리측 수역에서 통시디발적으로 벌여지고있는 미제의 위협행위들 안산사도발행들은 조선반도에서의 력전행위들이 극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이미 미국에 알아들으리만큼 충고도 주었고 여러차례에 걸쳐 경고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행정부는 파쇼대당중에서 빠져 우리에게 력적타격을 가하려고 오만무려 하게 달려들었다.

지금 우리 군대는 남로 가장되고있는 미제의 침략행위에 대처하여 정의의 력대포를 더욱 역세게 불어치고 보복의 칼날을 보다 날카롭게 비리고있다.

미제화전행위를 무모한 력전경도발방기로 《선사》발상을 미국의 평양뿐이 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함부로 경지당동 하지 말아야 한다.

파렴치한 날강도, 평화의 원수

미국이 《싸드》배치문제에서 남조선당국이 눈감는 무리라고 판단을 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력을 풀고있다. 미국주요, 국방성, 국방성의 권력들이 출몰이 나서서 《싸드》는 남조선을 《보》하는 미군의 필수적무기이며 《싸드》배치계획은 절대로 취소할수 없다고 고이켰다. 남조선용병적인 미국의 상진 민주당원행위를 생의대가 《싸드》배치의 항이 없었다면 10억USS의 비용이 드는 이 제제를 다른 나라들로 옮겨갈수 있다고 떠벌어 말았다. 미국의 언론들과 정책적인 자관들 《동맹》관계와 남조선을 위협에 빠뜨리는 무력화의 극치니 워니 하는 여론들을 환기시키며 그로 협세해나갔다.

이러한 속에 미해병대의 한 고위인원이 작전부대를 남조선에 영구주둔시켜야 한다고 기업을 토론했다. 우리의 《지속되는 위협》에 대처하여도 일본주둔 미3해병대동원병력이 합동군사연습하며 때로 남조선에 파견되어 하는 형태의 작전부대가 불합리하며 따라서 남조선에 대한 작전부대를 이에 영구주둔시켜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양측이 접어들고 말고가는 적이다. 미국이 우리의 《위협》을 내는것은 지역대국들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남조선에 아시아침략을 위한 교두보, 력전초기지, 정찰중기지를 영구히 놓아놓으며 지역에서 군사적우위를 차지하려는 저들의 흥미를 감추기 위해서이다.

《싸드》는 남조선에 엄청난 불행에 빠뜨리는 물건이다. 《싸드》의 전파방기가 가장할 때 나오는 강력한 전자기파는 매지지역 주민들을 물론 주변환경에도 막대한 방사선피해를 주게 된다. 머지 남조선이 《싸드》의 목표물이던 주민 나라들의 첫 타격대상으로 선정되게 되어있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남조선은 철성관을 지게 되었다. 남조선에서 《싸드》는 맹백히 미국관을 위한것이며 땅만 빌려주고 손재만 불것이라는 불만이 증대되고있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이 류동침미미국도 박근혜역도 판핵하여 핵대발이 된 폐피정치의 통배상태를 절고의 기회로 삼고 《싸드》배치를 한반중의 적고양이처럼 기승강행한것은 그 때문이다.

《싸드》는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서라도 지역적수들에 의한 군사적우위를 거고차지해보려는 미제의 아시아침략의 필수적무기이다. 미국이 퍼피들과의 《동맹》관계위키 거론하며 《싸드》배치를 강박하는것은 우연치 않다.

최근 미국의 교묘시 《프린 플러스》는 남조선당국이 《싸드》배치를 늦추는 태도가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 그로 하여 폐제를 무로 승자는 바로 중국이라고 력전경도 발했다.

미해병대 작전부대의 남조선영구주둔시도 아시아지배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남조선에 영구주둔하는 작전부대를 새로 내오면 일본에 주둔하고있는 미3해병대동원병을 지역에서의 임의의 군사작전에 대해 원활하게 활용수 있게 된다. 미호전광들은 해병대부대를 남조선에 영구주둔시켜 이곳을 미제침략의 모든 근초점단인 동지들 큰 아시아침략의 전초기지로 완전히 끌어내고 세계제패야망을 거기에 실현해버리고 희희낙락하고있다.

미국이 용악한 침략야망을 가리우려고 신분이 남 정도도 우리의 《위협》에 대해 광고하고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그 어떤 요질로라도 조선반도와 지역적세를 격화시키는 주범, 평화교피의 장본인으로서의 정체를 가리출수 없다.

제일조선인 평화통일 협회 간사회 제9기 제4차회의 진행

제일조선인 평화통일 협회(평통협) 간사회 제9기 제4차회의가 10일 도에 있는 조선상공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서승원 국제통일국경, 리동세 평통협 회장을 비롯하여 간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평통협이 조성된 정세와 통일운동방장의 요구에 맞게 자주통일의 대동로를 열어 나가기 위한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데 대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리동세 회장의 보고에 이어 도 론들이 있었다.

간사와 토론자들은 평통협이 간사회 제9기 제3차회의 이후 남승우총련과 광범한 해외동

포복과 반대행위 그리고 세일 동포들의 민족적단합을 위한 사업에 힘을 기울여왔으며 평통협 조직을 보다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온데 대해 말하였다.

그들은 남조선 각계각층의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지원하고 민족적통일운동의 전진기를 열어 나가는 데 적극 기여하며 평통협 조직을 더욱 강화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남승우 부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평통협 간사들이 미국 《북적계기》소동과 반공화국 침략전쟁정세를 분석하고 자주통일의 새 전환을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투쟁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미국에서 콜라콜라자 려이 발생

18일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음해에 들어와 세번에도 콜라콜라자가 발생하였다. 환자는 지난 14일 필리핀에 올림픽경기 대회는 세계적 규모에서 4년

에 한된 력전행위는 총합적경기대회, 체육경기이다. 경기대회가 진행될 때에는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현대올림픽경기대회는 고대올림픽경기대회에 비치면 후로 부터 1500여년이 지난 후 프랑스의 한 교육자의 말기로 부활되어 진행되었다.

1894년 6월 프랑스의 페리에서 열린 12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한 국제체육대표자 세계평화과 사회전진에 이바지하는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올림픽기발에도 흰색 바탕에 5대륙을 상징하는 푸른색, 노란색, 검은색, 녹색, 붉은색이 현전된 도형을 새겨넣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0여개 민족올림픽위원회들이 망라되어있다.

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은 날로 따라 더

갔다가 돌아온 30대의 남성이 라고 한다. 남조선에서는 최근 조부독감, 장미브스 등 각종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올림픽경기 대회는 세계적 규모에서 4년

에 한된 력전행위는 총합적경기대회, 체육경기이다. 경기대회가 진행될 때에는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현대올림픽경기대회는 고대올림픽경기대회에 비치면 후로 부터 1500여년이 지난 후 프랑스의 한 교육자의 말기로 부활되어 진행되었다.

1894년 6월 프랑스의 페리에서 열린 12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한 국제체육대표자 세계평화과 사회전진에 이바지하는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올림픽기발에도 흰색 바탕에 5대륙을 상징하는 푸른색, 노란색, 검은색, 녹색, 붉은색이 현전된 도형을 새겨넣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0여개 민족올림픽위원회들이 망라되어있다.

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은 날로 따라 더

올림픽의 날

올림픽경기 대회는 세계적 규모에서 4년

에 한된 력전행위는 총합적경기대회, 체육경기이다. 경기대회가 진행될 때에는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현대올림픽경기대회는 고대올림픽경기대회에 비치면 후로 부터 1500여년이 지난 후 프랑스의 한 교육자의 말기로 부활되어 진행되었다.

1894년 6월 프랑스의 페리에서 열린 12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한 국제체육대표자 세계평화과 사회전진에 이바지하는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올림픽기발에도 흰색 바탕에 5대륙을 상징하는 푸른색, 노란색, 검은색, 녹색, 붉은색이 현전된 도형을 새겨넣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0여개 민족올림픽위원회들이 망라되어있다.

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은 날로 따라 더

올림픽의 날

올림픽경기 대회는 세계적 규모에서 4년

에 한된 력전행위는 총합적경기대회, 체육경기이다. 경기대회가 진행될 때에는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현대올림픽경기대회는 고대올림픽경기대회에 비치면 후로 부터 1500여년이 지난 후 프랑스의 한 교육자의 말기로 부활되어 진행되었다.

1894년 6월 프랑스의 페리에서 열린 12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한 국제체육대표자 세계평화과 사회전진에 이바지하는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올림픽기발에도 흰색 바탕에 5대륙을 상징하는 푸른색, 노란색, 검은색, 녹색, 붉은색이 현전된 도형을 새겨넣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0여개 민족올림픽위원회들이 망라되어있다.

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은 날로 따라 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엄밀한 쿠바혁명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의 내부정복과 경제봉쇄를 추구하는 세로모의 대우정책을 선포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단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대쿠바정책은 분침상 《미국민주주의와 자유》, 《인권》보장의 간담에 쿠바내부에 불안정을 조성하고 쿠바에 대한 봉쇄를 더욱 강화하여 이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본복을 드러민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밖에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시기 제정된 모든 《알보》협정들을 파기할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역대 집권자들은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나라들을 전복하고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했으며 국제적합의와 공약도 깨뜨림으로써 뒤집고 오바마시기를 비롯한 때를 거슬러오르며 트럼프행정부가 두 뒤집어엮은것은 그 대표적사례로 된다.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나라들을 정지, 강제, 군사, 외교적으로 고립봉쇄하고 전복하여 미국

의 비위에 맞지 않는 모든것을 짓밟아버리고 알리를 가리지 않고 넣는것은 미국고유의 대국적특색이다.

오늘의 정세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철저히 견제하고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과 연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는 만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쿠바당과 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성을 보일것이며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을것이다.

주제106(2017)년 6월 22일 **평 양**

미국의 반구바정책을 규탄

로복아위부성이 최근 공포를 발표하여 미국의 반구바정책을 규탄하였다.

공포는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이전 미행정부가 쿠바의 세정하였던 《관계정상화에 관한 협정》을 파기한다고 선포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행정예고의 복귀로 막을 인하였다. 공포는 미국집권자가 발표한 반구바정책은 이미 사라져버린 행정시고장식을 피할수 있고있을 이것은 수십년간에 걸쳐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일장을 특징짓는다고 규탄하였다.

최근 50년간의 역사는 쿠바의 대외에서 고압적인 자세를 가진 필요가 없다는것을 미국에 보여 주었다고 하면서 로복아는 쿠바에 대한 수출입금지과 봉쇄, 제제를 반대한다고 공포는 강조하였다.

로복아위부성 봉쇄대변인 마리아 지하르마가 16일 홈페이지에 글을 발표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집권자가 이전 행정부가 쿠바와 체결하였던 《관계정상화에 관한 협정》을 파기

영국 런던에서 레로공격사건 또 발생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19일 이슬람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레로공격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이날 47살 된 범죄자가 한 이슬람교도들에서 레로모임에 참가하고 나오던 사람들로 하여금 소행형자동차를 마구 몰아대어 1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런던경찰당국은 이 사건을 레로공격으로 인정하였다.

불법무법의 살인행위에 분노한 이슬람교도들은 이를 자기들의 신영에 대한 가중스러운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하였다.

피해를 볼고 일이라는 레로공격으로 하여 이 나라 주민들은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있다 한다.

핀란드에서 산 불고해

보트투입의 중부지역에서 17일 산불이 일어나 피해가 컸다. 산불로 62명이 목숨을 잃고

54명이 부상하였으며 대기가 심히 오염되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엄밀한 쿠바혁명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의 내부정복과 경제봉쇄를 추구하는 세로모의 대우정책을 선포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단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대쿠바정책은 분침상 《미국민주주의와 자유》, 《인권》보장의 간담에 쿠바내부에 불안정을 조성하고 쿠바에 대한 봉쇄를 더욱 강화하여 이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본복을 드러민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밖에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시기 제정된 모든 《알보》협정들을 파기할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역대 집권자들은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나라들을 전복하고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했으며 국제적합의와 공약도 깨뜨림으로써 뒤집고 오바마시기를 비롯한 때를 거슬러오르며 트럼프행정부가 두 뒤집어엮은것은 그 대표적사례로 된다.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나라들을 정지, 강제, 군사, 외교적으로 고립봉쇄하고 전복하여 미국

의 비위에 맞지 않는 모든것을 짓밟아버리고 알리를 가리지 않고 넣는것은 미국고유의 대국적특색이다.

오늘의 정세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철저히 견제하고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과 연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는 만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쿠바당과 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성을 보일것이며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을것이다.

주제106(2017)년 6월 22일 **평 양**